

수석합격기

[제55회 행시 출입국관리직 수석]

자기 스스로를 믿는 긍정적 자세



김민경

-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제55회(2011) 행시 출입국관리직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최종합격 발표가 난지 한참 지났고, 2012년도 2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합격했다는 사실이 가끔은 믿기지 않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합격수기를 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분들처럼 글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써내려가야할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2년 전 어느 분의 합격수기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기에, 제 글이 단 한분에게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II. 수험기간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행정고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을 마치고, 외국에서 약 1년 간 생활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행정고시에 뜻을 두게 되었고, 여러 직렬 중에서도 출입국관리직렬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4학년 때는 주로 전공과목과 법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었고, 4학년을 마치고는 바로 졸업을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있는 시험이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에 스스

로를 믿고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차 면접에서 불합격을 하기도 하는 등 최종합격까지 3번의 시험,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2007년 첫 시험

이 시기에는 신림동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 우선은 2차 과목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법과 국제법은 학원 강의를 따라갔고, 형법의 경우에는 사시 1차 강의를 들었습니다. 형소법의 경우에는 사시 동차반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학원 수강을 했습니다. 1차 준비는 12월 학원 모강이 시작될 때, 모강을 들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본 시험에서 1차는 합격하였지만, 2차에서는 공부가 많이 부족하였기에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과목이 생소하였기에 학원 강의에 지나치게 의지를 많이 하여, 저만의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고,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 2009년 두 번째 시험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2년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2007년 2차 시험이 끝나고서는 여행을 다니기도 하면서 한참을 폭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1차 모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는 약6개월 정도 신림동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전 비디오 강의를 듣고, 독서실 다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저에게는 신림동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힘들었고,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독서실도 집근처로 다녔습니다. 1차의 경우, only 모의고사만을 들었고, 2차의 경우에는 부족한 과목의 경우(행정법과 국제법) 실강과 동영상 강의를 섞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학원 강의의 도움을 받았지만, 저에게 맞는 방법을 조금씩 찾게 되었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차 합격, 2차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3차에서 불합격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3. 2011년 세 번째 시험

3차 면접에서 불합격.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매우 컸습니다. 최종발표 후,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거라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족해서 불합격한것인데, 그 당시에는 괜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행정고시를 보지 않겠다고, 공부도 전혀 안하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10년 11월 말쯤, 어떤 분의 합격수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비슷한 합격수기를 보면서 갑자기 다시 한번 도전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떨어지고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체중도 약10kg정도 증가하였고, 성격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

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자, 믿기 힘들 정도로 하루 아침에 의욕이 생기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시험이 얼마 안남았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때도 2009년에 다니던 집 근처에 있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고, 신림동까지 다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국제법 3순환만 실감을 듣고, 1차와 2차 나머지 과목은 동영상을 듣거나 혼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상 불안하게 합격했던 1차 시험에서도, 컷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와서 1차의 불안함 없이 2차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도움으로 2차, 그리고 3차까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III. 공부방법

1. PSAT

사실 전 PSAT형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1차시험에 부담감을 더 느꼈었고, 1차 결과가 나올때까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특히나 자료해석의 경우, 초시에서는 과락을 겨우 넘기는 점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PSAT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성적은 오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 발목을 잡던 자료해석 점수가, 2011년에는 3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였고, 그로 인하여 컷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행시 준비를 하였을때는 PSAT 모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설을 해주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면서 시험만 보고 나왔고, 그 후에는 only 모의고사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강으로 얻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 변하는 기본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기출만을 가지고 공부해나갔습니다. 다만, 자료해석의 경우 취약과목이었기에 석차수의 자료해석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료해석 교재를 바탕으로 모든 과목의 문제와 지문, 보기 등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왜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것 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보니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출문제를 풀기만 했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풀어보았던 문제들이지만, 꼼꼼하게 다시 문제를 뜯어보니, 출제의도가 보이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문제와 꼭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원 스케줄을 따르지 않으니, 여유가 생기고 모강 점수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심적으로도 조금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2. 2차과목

(1) 행정법

공부하는 내내 가장 힘들었던 과목

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간결하여 다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보아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쓸 것이 별로 없어서 항상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강의를 들을 때 힘든 강의를 선택하여, 조현 강사님의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조문과 판례(특히 최신 중요 판례)암기를 충실하게 해나갔고,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모의고사와 사례를 많이 구해서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원하는 판례를 가능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국제법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는 과목이지만, 막상 공부하기는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방대한 양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도 문제였고, 조문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한채 공부를 했었습니다.

2011년에는 그동안 들어왔던 강의를 뒤로하고, 백승호 강사님의 3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3순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한동안 보지 않았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을 수 있었고,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단권화된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각 부분을 연결시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조문들을 철저히 암기하여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주요 조문들은 모두 암기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큰 흐름과 주요원칙들을

파악하고, 그 주요원칙들을 각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ICJ의 주요 판례들도 암기하여 케이스 제목만이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까지도 답안지에 자세히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형법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사시 1차 강의를 들었고, 그 후에는 2차 기본서와 사례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가 행시 강의와 겹칠때가 많아서 순환 강의를 다 따라가지는 않고, 모의고사 문제만 구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만, 김정철 강사님의 최종 정리 강의는 매번 들었습니다. 교재도 김정철 강사님의 2차 교재와 요약집을 보았고, 사례집은 이재상 강사님의 신경향사례연습을 보았습니다.

(4) 형소법

형법과 함께 항상 높은 점수가 나온 과목이어서 부담 없이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입니다.

공부 첫해에는 무작정 동차반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후 예비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2011년에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기본서는 보지 않고, 신이철 강사님의 단권화 자료로 공부하였고, 형법과 마찬가지로 김정철 강사님의 최종 정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형소법의 경우에는 사례집은 따로 보지 않고 모의고사 문제만 구해서 풀었습니다.

(5) 스페인어

전공이 스페인어여서 아주 큰 부담은 없었지만 한-서 번역은 공부하기가 힘들

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학원 강의로도 들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나중엔 계속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행시와 외시 기출문제를 모아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암기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외우기 보다는, 무조건 사전을 이용하여, 이미 찾아보았던 단어도 바로 생각이 안나면 다시 찾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 저절로 외워지도록 하였습니다.)

한-서 번역의 경우 혼자 공부할 땐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서-한 위주로 공부를 하다보면 저절로 한-서 공부도 같이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기 보다는 최대한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 구조들을 이용하여 그 의미가 통할 수 있게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교제는 한국외대 강독 교제를 보았습니다. 강의 교재여서 답이 없긴 했지만 서-한의 경우에는 답안이 없어도 공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3차 면접준비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긴장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차 발표 후 행시사랑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단토론과 개인PT, 그리고 사전조사서를 준

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너무 힘들다 싶으면 쉬는 날도 있었고, 집단토론만 하고, 개인PT와 사전조사서의 경우에는 철학을 해주기만 하는 등 그때 그때마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른 스터디와 비교하면 조금은 여유있게 했던 것 같지만, 이러한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터디 준비와 그 시간에 쫓겨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답변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것 보다는, 힘들 때는 쉬어가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았던 것이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끼리 피드백을 매우 자세히 반복해서 해주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달이라는 면접준비 기간 만큼 힘든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수 직렬에 한번 떨어진 경우에는 그 부담감이 정말 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얼마 안있어, 스트레스성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병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잊고 있었던 경험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다가도, 많이 고쳐줬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은 조금씩 없어지고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스터디원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응원이 되기도 하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면접준비 기간이지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자신의 살아온 삶

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함께 할 동료들과 시간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든 면접준비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IV. 기타 수험생활

1. 생활패턴

수험기간동안 제 생활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침 8시 반쯤 독서실 도착하여 3-4시간 공부를 하다가, 점심을 먹었고, 그 후에 5-6시간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항상 1-3이닝까지는 보았고, 그 후에는 주로 스페인어 공부를 하다가 잠 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독서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다가 야구경기를 다 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변함없는 이런 생활이 슬럼프 없이 수험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플 때는 무리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2차 시험을 약 한달 앞두고 몸이 안 좋은데도 미련하게 공부하려고 하다가, 탈수증세와 폐렴으로 1주일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과 불안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몸이 안 좋을 때는 바로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고 폭자는 등 빨리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 답안작성 연습

수험기간 동안 면접 스테디를 제외하고는 스테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도 거의 보지 않고, 문제와 답안만 챙겨와서 독서실에서 따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 아까웠고, 나중에는 제 답안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다만, 제가 답안을 직접 작성하기 보다는 모의고사 답안이나 사례집 답안을 보고 그대로 써내려갔습니 다. 물론 책이나 모범답안을 보지 않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무조건 많은 사례의 답안을 보고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안작성을 연습한 스프링 답안지가 몇 십권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목차를 잡고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저에게만 맞는 방법일수도 있어서 추천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답안지는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서브노트 작성

평소 공부할 때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2-3주 전부터 시험장에 가져갈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성격상 시험날 많은 책을 가져가면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시험날 가져갈 서브노트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강사님들이 짚어주시는 주요주제들과, 항상 1순위로 거론되는 주제들을 문구점에서 파는 답안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30개를 넘지 않게 하여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동안 주요주제들을 직접 써볼수도 있어서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V. 나가며

긴 수험기간을 되돌아보며 쓰다보니 생각보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각자의 공부방법이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제 글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분이라도 제 글을 읽고 희망을 얻고, 그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

지만 그 힘든 시기를 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에 한번 보는 소수직렬을 선택했을 때는 무모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 최종합격이라는 결과가 올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너무나도 원했던 길이기에 스스로를 믿으려고 노력했고, 저를 믿기 위해서 그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만큼, 그 만큼 최선을 다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누리시는 날이 꼭 올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면접스터디원에게도 정말 고맙고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